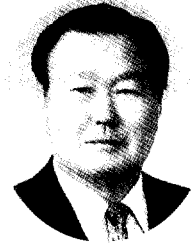


취임사

“허리띠 눈금을 한치만 더 조여 맵시다.”



會長 邊勝鳳

親 愛하는 7千 會員 여러분!
丁丑年 새해에도 福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大成을 거두시기를 祈願 하면서 세배에 대신합니다.

무엇보다도 于先, 今年은 우리 學會의 發展을 위해서 매우 重要한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 理由는 今年이 우리 學會의 創立 50周年이 된다는 意味도 있습니다. 最近 우리나라의 經濟가 그 構造的 결함으로 因하여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民族은 5000年의 歷史를 통하여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民族의 固有文化를 찬란하게 유지하고 發展시켜 왔으며, 最近의 半世紀 동안에도 南北分斷이라는 悲劇的 對立속에서도 漢江邊의 繁榮을 이룩한 偉大한 單一民族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難局도 슬기롭게 극복할것이며, 오히려 先進國隊列의 앞자리로 뛰어넘는 機會로 만들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最高의 專門家集團인 우리 學會도 非常한 覺悟로 우리 役割을 다하여 우리 經濟가 早速한 時日내에 이 危機를 벗어나서 再도약할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까.

지난해 우리 學會는 劉錫九 會長님의 탁월한 운영으로 그 規模가 비약적으로 發展하여 名實相符한 代表 學會의 偉容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會員數 6,969名, 年間豫算 6億원초과, 每月 學會誌와 論文誌를 發刊하였고 季刊發刊의 英文論文誌를, 他 學會와의 共同 英文論文誌도 分期別로 發刊하였으며 夏季·秋季 兩大 學術大會에서는 合計 797편의 論文을 發表하고 討論하였습니다. 8月的 ICEE 北京大會에는 107名의 會員이 參加하여 54편의 論文을 發表하였습니다. 特히 夏季 龍平大會때에는 元老會長團을 招請하여 간담회를 하는 等新·舊 世代間의 理解增進과 紐帶強化를 이루어 日本電氣學會 代表團과 中國電機工程學會 代表團의 격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業績들은 모두 會員 여러분의 積極적 參與와 헌

신적 協助의 德分이었으며 이 精神은 今年에 도 계승되어 더욱더 熱誠的으로 參與해 주시기를 빕니다.

今年은 우리 學會의 創立 50周年이 되는 해로서 各種 紀念事業들이 順調롭게 準備되고 있습니다. 50周年紀念式과 祝賀宴을 國內外에서 招請한 學界·産業界 人事들과 政府의 貴賓들을 모시고 7月 9日 서울 科學技術會館에서 盛大 하면서도 알뜰하게 거행할 豫定이며 이 紀念日을 前後하여 7月6日~10日까지 5日間 ISAP '97國際學術會議를 서울로 이미 유치하였습니다. 300餘 名의 外國學者들이 入國하여 서울大學校 新工學館 등에서 人工知能, 神經回路網, FUZZY 理論 등의 電力分野에의 適用에 關하여 수백명의 우리 會員들과 大討論을 벌리게 됩니다. 50周年紀念 國內學術大會는 '97夏季大會로 進行되며 7월 下旬에 무주 Resort에서 全國의 會員들이 모여 學術發表와 祝祭 한마당을 벌릴 計劃입니다. 그리고 學會誌는 이미 지난해 10月號부터 各 研究會別로 紀念特輯이 나가고 있으며 今年 10월에 마감됩니다. 學會 50年史 編輯事業도 延世大學校 朴相禧 教授님의 主導下에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으며 紀念式典때에 會員여러분에게 配布해 드릴 豫定입니다.

그리고 ICEE 大會는 每年한번씩 東亞細亞諸國에서 번갈아 가면서 열기로 한 學術行事로서 今年에는 7月 29日부터 日本 廣島市에서 열릴 豫定입니다. ICEE '97大會도 昨年 北京大會와 같이 大盛況이 되도록 會員 여러분의 積極的 協助와 參加가 期待됩니다. 이 大會의 性格은 CIGRE, IEEE 等に 當當하게 競爭 하려는 것으로서 21世紀 太平洋時代에 對備하여 찬란한 歷史와 文化遺産을 갖고 있는 漢文圈 國家間의 協力과 새로운 科學技術文化를 創造하려는 높은 理想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韓·日·中 三國이 中心이 되어 있으나 차차로 周邊國으로 확산될 것이며 三國의 電氣學會가 매우 情熱的으로 이 事業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學會의 모든것은 會員 여러분의 것이며 會員을 위해 存在합니다. 또한 會員 모두가 學會活動에 積極的으로 同參하고 밀어줌으로서만이 우리 學會는 더욱 發展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學會가 會員相互間의 交流와 討論의 場이 되며 産業界와 學界 그리고 國民에게 親切한 案內와 弘報機關이 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다시한번 會員 여러분의 家庭에 하나님의 祝福이 가득하시기를 祈禱드리면서 이 글을 맺습니다.

1997年 元旦

學會 會長 邊勝鳳